

-은/ㄴ 채

앞의 일이 끝난 상태에서 아무 변화도 없이 뒤의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. 'AVst은/ㄴ 채로'라고 쓰기도 합니다.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.

-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은 채로 잤어요.
-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.

※ '-은/ㄴ 채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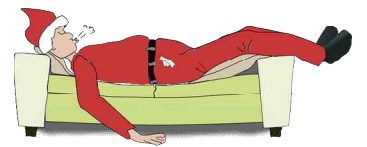
-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쓰러지다 | · | · 수영을 하다가는 사고가 날지도 몰라. |
| 2. 에어컨을 켜 놓다 | · | ·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. |
| 3. 준비운동을 안 하다 | · | · 자다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. |
| 4. 수험생들은 휴일도 있다 | · | · 집을 나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. |
| 5. 창문이 열려 있다 | · | ·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. |

1. _____.
2. _____.
3. _____.
4. _____.
5. _____.

※ '-은/ㄴ 채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가 : 어찌다가 다리가 부러졌어?
 나 :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지, 뭐.

1. 가 : 저는 _____ 자는 습관이 있어요.
 나 :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앞으로는 불을 끄고 자도록 하세요.
2. 가 : 얼굴에 웬 상처예요?
 나 : _____ 세수를 하다가 안경 코받이에 긁혔어요.
3. 가 :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?
 나 : 아니요, _____ 한국에 와서 기억, 니은 디근부터 배웠지요.
4. 가 : 주리 씨는 어디 갔어? 코트는 여기 있는데.
 나 : 몰라, 아까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_____ 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네.
5. 가 :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_____ 잠을 자서 정말 짜증났어.
 나 : 정말 그랬겠다. 지하철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는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말야.



답

※ '-은/ㄴ 채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쓰러진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.
2. 에어컨을 켜 놓은 채로 집을 나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.
3. 준비운동을 안 한 채로 수영을 하다가는 사고가 날지도 몰라.
4. 수험생들은 휴일도 잊은 채로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.
5. 창문이 열린 채로 자다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.

※ '-은/ㄴ 채'를 대화를 완성하세요.

1. 불을 켜 놓은 채
2. 안경을 쓴 채로
3. 한글을 안 배운 채
4. 코트도 안 입은 채
5. 다리를 벌린 채